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존재케 하라”

한반도 대운하 반대 행렬에 전북·충남의 불자들이 나섰다. 4월 22일 금산사, 선운사, 마곡사, 수덕사 등 조계종 전북·충남지역 4개 본사 스님과 불자 200여명은 금강 하구언에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도보순례단의 금강순례 출발행사에 동참했다.

‘금강운하의 위협으로부터 금강을 살리는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금강순례 출발행사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행사. 선운사 법만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통해 “생명평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우리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생명의 터전인

전북·충남 4개 본사 대운하 반대 행렬 참여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금강을 오로지 ‘개발’과 ‘발전’의 당위만을 내세워 파헤치는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한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여여하게, 두두물물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못생명의 자연스러운 존재방식”이라며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순례단을 이끄는 도법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4대 종단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순례를 통해 운하의 비현실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운하를 건설해서는 안되는 까닭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그 이유를 대중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순례 71일째를 맞은 도보순례단은 금강 하구를 출발해 전북 익산, 충남 논산, 부여, 공주, 연기를 거쳐 금강의 지천인 미호천을 지나 5월 10일 청주에서 100일간의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보순례단은 4월 18일 부안 해창 갯벌을 출발해 21일 까지 동진대교, 김제 망해사, 김제 거전갯벌, 군산 하제항 등을 거쳐 군산 내초도 앞 갯벌까지 새만금 갯벌과 연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4월 22일 금강하구에서 열린 대운하 반대 금강순례출발 행사에는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과 생존의 위협에 처한 지역 주민의 아픔을 느끼며 새만금 지역을 순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꽃바람 솔향기 함께 퍼진 선율

4월 20일 전주 모악산 금선암, 산사음악회 열려



4월 20일 전주 금선암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 모악산 금선암(주지 덕산)은 4월 20일 ‘꽃바람 솔향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금선암 신도 및 모악산을 찾은 상춘객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함께한 음악회는 전주시립국악단의 합창 목소리 연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퓨전 판소리 ‘제비노정기’, 국악가요 ‘배 띄워라’, 대피리 가락과 모듬북 등으로 활기찬 리듬과 경쾌한 가락을 더한 합주곡 ‘방황’, 불교전통 승무와 사물놀이 협주곡, 통기타 가수 오경진씨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시간 내내 관

람객들을 신명나는 시간으로 이끌었다.

산사음악회를 기획한 덕산 스님은 “솔향기 은은한 도량에 연주단과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꽃바람이다. 부처님 오신날에도 여러분의 꽃향기와 솔바람이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길 바란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선암에서는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봄내음이 가득한 화전과 산채비빔밥 등을 공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정심으로 국민에 봉사하렵니다”

공불련 금산사서 철야정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제 5차 임원회의 및 제16차 성지순례 범불교 회의를 개최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김원주 전북도지사 등이 동참한 범회에는 전국 공무원불자 300여명이 동참했고, 일감 스님의 지도 아래 범회는 철야 정진으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불교는 자각각타의 종교다.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서 구해 이웃에 회향해야 할 것이다. 전법 도생과 자리아타의 정신으로 보현 행원을 실천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공불련 회장은 “공무원들은 많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공불련은 국민을 편하고 이롭게 한다는 본분을 되새겨 청정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자”고 다짐했다.

임원회의에서는 불자회 미설립 기관의 불자회 설립 유도과 일정일 임(一應一任: 한 기관에서 한가지 분야 봉사를 맡는) 운동 등을 통한 포교 및 봉사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사찰과 연계한 수행 및 포교활동을 전개해 생활불교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공불련은 6월에는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중국성지순례를 계획했다. 또한 10월에는 창립 8주년 기념 범불교와 산사음악회 개최, 11월 22일은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로 정해 각 지역기관별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불련은 내실 있는 수행 정진활동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국내의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수계법회 및 철야정진대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경보살의 원력 모아 청정국토 만들 것”

광주불교환경연대 출범식

불교계의 본격적인 한반도 대운하 저지 움직임의 하나로 광주불교 환경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4월 19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성오 스님(고불총림 경연대 상임대표, 완도신홍사 주지), 배삼희 회장(가톨릭농민회), 임낙평

회장(광주환경운동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은 “지역의 젊은 불교 활동가들이 이 시대의 공업(共業)을 해결하기위해 불교NGO를 설립했다. 이웃과 자연의 아픔을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자연 생태계 파괴

와 빈부 양극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광주에서 새로운 불교 환경운동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불교환경연대는 대운하 백지화운동, 불교환경 캠페인, 빈그릇 운동, 환경아카데미, 어린이생태 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환경인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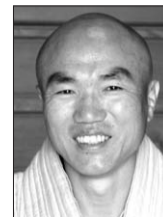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금산사 수련원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

“템플스테이는 깨어있는 휴식 시간”

기발한 아이디어로 템플스테이 진행 ‘일감 스님과 대화’ 프로그램의 꽃



벚꽃이 꽃피로 반기고 진달래향이 그윽한 계절이네요. 그늘 밑, 서래선원에서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과 마주 앉았다.

금산사 수련원의 템플스테이는 2007년 연인원 4000명이 다녀갔다. 올해만 4월까지 2000명이 다녀갔고 연말까지 5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인기 있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일감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산과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대자연과 함께 조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금산사를 찾는 대중들은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가족단위의 참가도 늘고 있고 종교를 초월한 각종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깨어있는 휴식이다. 감각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절집의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는 휴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깨어있는 휴식을 통해 성숙된 자세를 맞아 아픔을 정리하고 자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스님은 매월 계절의 변화와 특색에 맞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춤명상 템플스테이’ ‘화전놀이 템플스테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등 아이디어도 기발하다. 예불, 참선, 108배, 다도, 들녘걷기, 찻잎따기 등 기본 프로그램 외에 이벤트성 프로그램

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산사 체험으로 이끈다.

일감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모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화두를 받아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참가자들은 한번 다녀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혹은 가족·주변 사람들과 다시 금산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일감 스님과 대화다. 참가자들이 일감 스님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거리를 물으면 명쾌한 설명으로 단박에 고민이 풀린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법적 입장에 충실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권유할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하지만 서먹했던 참가자도 스님과 말 몇마디 나누면 금세 마음을 열고 대중과 대화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일감 스님은 “급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권했다.

스님은 “불교는 수행해서 꽃을 피우고, 수행을 통하여 바뀐 삶의 모습으로 깨달음의 향기를 주위에 전달한다”며 “결국 수행이 삶을 바꾼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전북지사: (063)910-5199

5월에 있는 木曜강좌

“선문찰요 (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참선! 모르고 하면 어리석음만 짓습니다.

달마 祖師께서 “禪門”을 열어주는 길 “선문찰요” 그냥 날려져 있는 불교는 약체방은 있으나 의사 없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쓰면 오히려 불교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은 스트레스로 묶여 있습니다. 禪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긴장을 풀게 합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밝아집니다. 묶여있는 의식으로 부터 해방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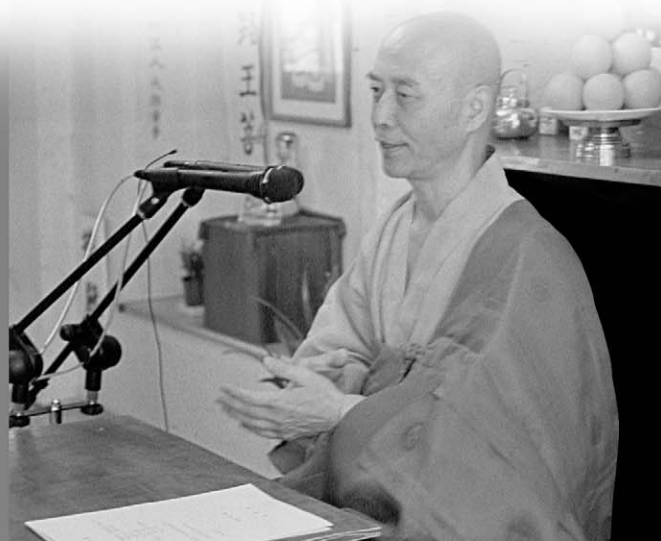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은 바로 그가 오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문찰요”는 서산, 경허스님 등 모든 종사가 의지했던 서책입니다.

서울 六祖寺 현웅스님께서 작강설 합니다.

- 일 시 : 시작 - 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회향 - 08년 9월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교재 주문 가능)
- 동 참 비 : 4~5개월간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예금주 육조사)
- 육조사, Phone : 02)953-5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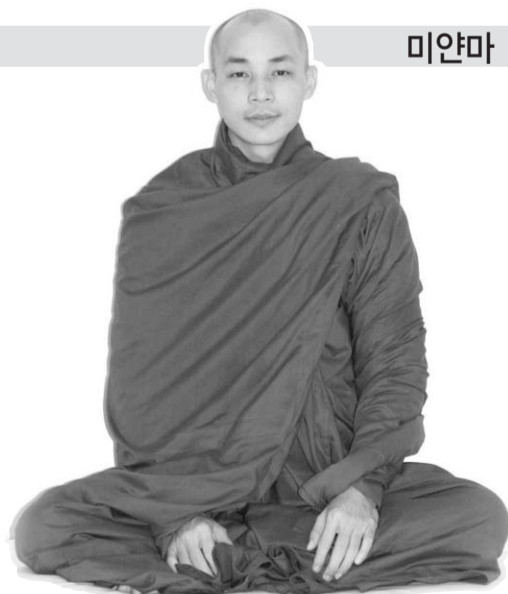
※ 참가 대상은 信心 있는 사부대중, 出家者들은 다 入法할 수 있음.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부시고 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 아신 뽀딧짜 스님의 정통 위빠사나 수행 강의

미얀마 스님의 유창한 한국말로 강의

초보자도 알기 쉽게 위빠사나 수행강의



아신 뽀딧짜 (Ashin Pandicca)

- 미얀마, 산도, 깔러 시 출생
- 1982년 첫번째 출가(따웅 부 루 토야)
- 1988년 두번째 출가(몽요아 시)
- 1990년 비구계 수계(몽요아 시)
- 1990~92년 수행명상 센터 (2년간 있었음)
- 1993~96년 강원(비지다요 강원 몽요아 시)
- 1997~99년 강사(미아와디민지 강원 만달레이 시)
- 2000년 토굴 생활(판우린 메이묘 시)
- 2001~현재 산마따나 수행 센터 양근(주지) 지도자 법사 산마따나 수행센터
- 2002년 다곤 대학 졸업
- 2005년 베타우 불교 센터 건립(불교/한국어)
- 2003~04년 해외포교대학원 졸업
- 2003~08년 조계사 청년회 범회 강의
- 2007년 광주 원각사, 제주 산방사 법회강의
- ▷ 6월 1일 광주 원각사 법문
- ▷ 5월 1일 ~ 12일 제주 산방사 법문

맑은마음, 밝은사회, 좋은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법/회/안/내**

- ▶ 금강경 강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7~9시
- ▶ 천수경 강의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 ▶ 초발심자경론 - 매주 수, 금요일 오전10시~12시

- 일 시 : 5월 14일(수)부터 (21일간)
- 시간 : 오후 2시 ~ 4시
- 대상 : 스님 및 재가불자 모두 동참 가능
- 동참금 : 5만원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 3번출구 바로 앞) 문의-(051) 334-8108